

## 사단의 옛 틀을 박살내고 예수사랑의 새 틀로

### - 복음으로 여는 고린도전서 -

창세기3:15, 고린도전서13:1-13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언약을 놓쳐서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 사주,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지옥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셔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먼저 알았사오니 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정말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날마다 성장하며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 틀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응답과 해답이 되게 하시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확실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고린도는 상업 중심지로 부유한 도시이며, 여러 민족들이 뒤섞여 사는 항구도시였다. 그로 인해 다양한 우상과 신전도 많았다. 그들의 삶은 상업, 우상, 종교로 하나 된 삶이었다.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우상,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종교의 전시장이 된 도시였다. 그로 인해 당시 고린도는 타락과 방탕과 음란으로 유명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다. ‘고린도 사람’이라면 굉장히 타락한 사람으로 생각될 정도였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고린도 교회의 설립은 사도행전 18:1-17에 기록되어 있다. 바울은 AD.50년에 제 2차 전도여행으로 그 도시에 방문했을 때 업이 같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 두 부부와 함께 교회를 시작하였고, 그 후 약 18개월 동안 사역을 했다. 어떻게 보면 떠밀리고, 고난을 받아서 간 곳이 고린도 교회이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최고의 제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실패, 저런 실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성령인도 받으면 그 모든 과정이 언약의 여정이 될 줄 믿기를 바란다. 결국에는 만남의 축복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아니다. 고린도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사명자를 데리고 에베소로 가게 되었다. 에베소에서 소식을 들어보니, ‘고린도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심 끝에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에베소에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인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는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성장하여 대형교회가 된 고린도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고린도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

에 대하여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상황에 적절하게 복음 안에서 구체적으로 답을 주고 있다.

**1. 첫 번째로 고린도교회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 문제들은 크게 열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단이 가져다 준 옛 틀이라고 할 수 있다.

(1) 1장 10절에서 4장 21절에 보면 분쟁과 분열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특히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당시 고린도교회는 네 파로 분열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2) 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성·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오히려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이 실수했는데 품어주는 것과 동조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은가. ‘우리가 너무 악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회개하면 돼.’ 하는 것과 ‘그럴 수도 있어. 그게 복음과 무슨 상관있어.’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

(3) 6장 1절에서 20절에서는 불신자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 볼 수도 있다. 여러분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되시기를 바란다.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혔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너희는 모든 땅과 성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도 다 양보하라. 손해봐도 괜찮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은 다 멸절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양보하는 것이다.

(4)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40절에서는 결혼에 대한 바울의 의견을 조언하고 있다. 즉, 본질적인 것이 아닌 문제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강조하면 된다.

(5)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에 보면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 고린도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을 다음과 같이 책망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이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우상제물을 먹는 것은 구원론이나 신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불신자가 볼 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삼가 하는 것이 더 복음적이라는 것이다. 불신자를 정말로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6)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의 내용은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와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박이 나오고 있다. 서로를 이기려고 싸우는 반박을 하는 것이다.

(7)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에는 공적예배에서의 남녀의 규정에 대한 문제, 특히 여성이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을 설명하고 있다. 바울은 당시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여성의 차림새를 이야기한 것이다. 오히려 복음 누리는 것에 방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8) 11장 17절에서 34절에는 성찬 때에 빈부의 차이를 두는 문제를 말하고 있다.

(9) 12장 1절에서 14장 40절에는 은사에 대한 문제이다.

어떤 사람은 크게 소리 지르며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서로 이해하며 함께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10) 15장 1절에서 58절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 2. 이러한 고린도교회의 문제들에 대하여 사도바울을 어떠한 답을 주었을까?

(1)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을 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2)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탄에 틀에 갇혀 분열되어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 틀은 오직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즉, 전도란 하나님의 입장에서 미련한 방법이지만, 또한 모든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3) 고린도교회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다 이해가 되고 힘이 생긴다.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한 줄 믿기를 바란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것, 복음적인 것, 사랑, 진리 이런 것들은 성령으로만 분별되는 줄 믿기를 바란다. 주일성수, 십일조, 헌금하는 것은 바보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미래를 보게 하신다.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4)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새 틀의 말씀은 그리스도 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 중에 가장 나쁜 것은 성도 간에 분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5) 그러나 고린도교회의 문제들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은 사랑절이라고도 한다.

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이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이다.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바꿔 보라.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될 것이다.

② 그 다음은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결국에는 복음, 예수만이 남는 줄 믿기를 바란다. 그 복음이 주인되어야 한다.

결론이다. 말씀을 마치면서 고린도전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CVDIP를 발견하고자 한다. 고린도전서 말씀과 우리의 CVDIP이다.

1. 첫 번째는 Covenant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고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다.

2. 두 번째는 Vision 이다. 절대 불가능한 고린도지역에 기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이것은 237나라의 부흥도 가능하다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세 번째는 Dream, 꿈이다.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복음적으로 치유된다면 우리들의 많은 소망과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네 번째는 Image와 기도이다. 고린도교회는 음란, 타락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는 이미지로 변화되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로 행복한 교회의 이미지로 변화 되어야 하겠다.

5. 다음은 Practice, 실천이다. 고린도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 많은 책망을 들었다. 그러나 고린도교회는 그 책망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실천했다. 그 결과 고린도교회는 천년의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도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통하여, 나에게 문제를 가져다 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237의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 드린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창세기 3장에서 역사했던 마귀가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나고, 언약의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의 능력, 왕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박살나고,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새 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